



모바일 오피스 허점 “꼼짝마!”

기업 스마트폰 통합보안 시작됐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1000만명에 육박하면서 ‘모바일 보안’이 뜨거운 화두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3G, 와이파이(Wi-Fi)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웹과 접속할 수 있는 편리함만큼이나 개인정보 등의 노출 위험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 하반기 스마트폰 모바일결제, 신용 카드, 멤버십카드, 단말기끼리의 통신 등

‘스마트 시큐리티(Smart Security)’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시큐리티는 업무용 스마트폰에 대한 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만든 모바일 보안 통합 솔루션으로 크게 ▲단말기(Device) 보안 ▲기업내 시스템 등 Network 보안 ▲문서 파일 등 Contents 보안 ▲사용자 인증 보안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바일 단말기를 통한 데이터 트래픽 등 사용 현황을 감시함으로써 보안 문제를 사전 차단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안철수연구소, McAfee, F5, Juniper Networks 등과 제휴(Alliance)를 통해 각 보안 영역별 보안기술과 노하우를 확보했다. 대표적으로 안철수연구소가 출시한 V3 모바일을 스마트 시큐리티에 탑재함으로써 스마트폰에서 동작 중인 모든 프로세스를 실시간으로 검사하고, 시행파일뿐만 아니라 일반파일도 수동 검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해 SSM의 기능을 대폭 보강했다.

KT도 기업용 모바일 오피스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한국주니퍼네트웍스와 업무 제휴를 체결한 상황이다.

주니퍼의 모바일용 보안 솔루션인 주노스 펄스(Junos Pulse)와 주노스 펄스 시큐리티 스위트(Junos Pulse Mobile Security Suite) 솔루션을 통해 ▲안티바이러스, 안티스팸, 개인 방화벽 기능 ▲분실·도난시 원격 제어기능 ▲데이터 백업 및 복구기능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및 제어 기능을 개인 및 기업고객이 설치할 수 있도록 공동마케팅 및 영업 활동을 함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경민기자 kki@

SKT, 안철수 V3 모바일 탑재 ‘스마트 시큐리티’ 출시 도난시 잠금·데이터 삭제·와이파이 통제 등 원격 제어

NFC(근거리무선통신) 서비스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대카드의 해킹, 농협 전산장애 등에서 잇따라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더구나 대부분의 기업이 ‘스마트워킹’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 사내 기밀 유지 등에도 모바일 보안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먼저 나선 곳은 SK 텔레콤이다. SKT는 17일 기업용 모바일 보안 통합 솔루션인

가장 핵심이 되는 SSM(Smart device Security Management) 기능은 ▲스마트폰 분실 또는 도난시 원격 제어로 단말기에 잠금기능(Lock)을 실행하거나 데이터 삭제를 통해 정보 유출을 막아 기업정보를 보호할 수 있으며 ▲기업 전용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이나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자동 설치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거나 ▲기업 내에서 활용되는 스마트폰 카메라 또는 와이파이 등을 통제하고 모



가족·친구들과 ‘별 헤는 밤’

지난 14일 광주 롯데 아울렛 수완점 호수공원 시계탑 광장에서 열린 광주·전남 천문동호회 ‘별사랑’이 주최한 공개 관측회를 찾은 시민들이 6인치(구경 150mm) 쌍안경으로 달 분화구를 관측하고 있다.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차세대게임 품질테스트 서비스 지원’ 광주정보·문화진흥원 2년 연속 선정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지원하는 차세대게임 품질테스트 서비스 지원사업에 광주정보·문화진흥원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

이번 지원사업은 차세대게임 품질테스트 체계를 조기에 정착화하여 지

역 게임콘텐츠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실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며 상용화 이전 단계의 게임을 대상으로 기능성테스트, 사양테스트, 네트워크테스트 등 기업의 다양한 요구분석에 맞춰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지

난해에도 테스트 퀄리티와 만족도에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게임품질 테스트를 원하는 기업은 사전 접수를 통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무료로 테스트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상길 원장은 “게임 품질테스트 지역 거점으로서의 역할 강화와 게임 기업들의 요구사항 분석과 테스트 결과에 대한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062-350-243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휴대폰 대중교통 결제 2015년 5억명”

주니퍼리서치 보고서 “종이 바코드 대체 활용성 높아”

2015년에는 전세계에서 5억명이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의 결제 수단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17일 시장조사기관인 주니퍼리서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교통을 탈 때 휴대전화로 값을 내는 인구는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1억명인 것으로 추정됐지만 2015년에는 5억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모바일 교통 결제 시장

은 기차나 항공 여행 분야에서도 기존의 종이 바코드를 대체할 수 있는 높은 활용 잠재성이 있다. 현재 유럽이나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다른 국가로도 확산될 것”이라며 이 같은 예측치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휴대전화를 통한 대중교통 결제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배경으로 근거리무선통신(NFC : Near Field Communication)의 활약을 들

었다.

NFC는 10cm 이내의 거리에서 두 대의 단말기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로, 한국에서도 지난 3월 기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그랜드 NFC 코리아 얼라이언스’가 구성된 바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바일 교통 결제 방식으로는 SMS, 바코드, NFC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고서는 이 중 NFC 기술이 모바일 대중교통

결제 시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유럽에서 사용하는 SMS 결제 방식이 점차 사라지는 한편 NFC 기술의 급속한 보급이 모바일 교통 결제 시장 성장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2013년부터는 주요 지하철 운영 주체들이 NFC를 채택하는 것을 계기로 모바일 교통 결제 시장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맞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SMS, 바코드, NFC 중 어떤 방식이 됐든 모바일 교통 결제의 핵심적인 장점은 편리함과 사용자들의 선택성이 좋다는 것”이라며 “교통수단에 대한 모바일 결제는 서유럽이나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이 이끌 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혜스

삼성전자, 갤럭시 진저브레드 업그레이드

삼성전자가 17일부터 단계적으로 갤럭시S, 갤럭시탭 등 국내 출시된 갤럭시 모델에 대한 진저브레드(안드로이드 2.3) 업그레이드를 실시한다.

진저브레드 운영체제는 기존 버전인 프로요(안드로이드 2.2)에 비해 일부 애플리케이션 실행 속도와 편집 기능이 향상됐으며 배터리와 애플리케이션 관리 기능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새로운 기능은 ▲안드로이드 플랫폼 미디어 지원 ▲NFC·SIP와

같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툴 지원 ▲새로운 UI빌더 제공 ▲앱 개발시 보안설정 등이다.

특히 디바이스 키보드를 직관적으로 개선해 입력과 수정이 빨라졌고, 자동 수정 기능이 추가됐으며 NFC 기능이 추가돼 앞으로 모바일결제, 신용카드, 멤버십카드, 단말기끼리의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가능하게 됐다.

국내에서는 갤럭시S/K/U를 시작으로 갤럭시A, 갤럭시탭 등 다른 모델로 업그레이드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사용자는 삼성 디지털 기

기 관리용 PC 소프트웨어인 키스(Kies)를 활용하거나 삼성전자가 서비스센터 방문해 업그레이드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6월까지 키스를 통해 업그레이드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스마트TV, 센스 노트북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김경민기자 kki@



제101227-중-20563호

*조감도

환자맞춤형 척추질환치료

순천 서울우리병원

• 서울우리들병원 출신 김정목 병원장 • 풍부한 경험의 의료진



순천시 조례동 1719-5번지 서울우리병원 B/D

대표번호 061) 759-1000